

「디지털 시대, 중년기 가족의 교육비: 문제진단과 해결방안」

최 현 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과다한 교육비지출 문제는 우리 나라 가계가 안고 있는 커다란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중년기 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비 문제를 살펴보았으나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자녀가 유치원에 취원을 하게 되면서부터 대학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추정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사교육비로 유치원 아동은 155만원을, 초등학생은 330만원을, 중학생은 206만원, 고등학생은 233만원, 그리고 대학생은 395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주의 연령이 40대인 경우 총 소비지출에서 교육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16-17%)이 식료품을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어느 시기보다도 교육비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중년기 가계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분의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본 논문에서는 중년기 가계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문제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온라인 교육서비스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온라인교육서비스의 장점(저렴한 교육비)과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며 또한 인터넷채무설계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녀교육비를 설계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해 주었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서비스의 질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저비용이라는 강점과 함께 현재의 사교육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본고와 더불어서 좀 더 고민해 볼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에서 밝혔듯이 소득이 감소해도 사교육비지출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사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교육이 과연 필수적인 것인가? 사교육을 필수재로 인식하고 있다면 공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실시되고 있으나 취학전기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육에서는 사교육의 공교육화가 시도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년기 가계에서 사교육비의 부담자가 누가 되어야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주로 대학교육비로 대표되고 있는 중년기가계의 사교육비는 수혜자부담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수혜자부담원칙의 적용은 교육의 효과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본다.

셋째로, 중년기가계를 넘어서 가계가 처한 각 생활주기에 따라 사교육의 목적과 지출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적절한 교육비 경감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또한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방안 즉 재무설계방안도 생활주기를 고려해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를 위해 필연적으로 줄여야 하는 지출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가계지출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해서 가계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교육비 지출수준에 대한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계복지에 부정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비목이 사교육비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비지출로부터 얻는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교육을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더불어 학력사회에서의 교육의 선별기능을 맹신하기 때문에 편익을 넘어서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서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제한된 자원을 공유하는 가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유한 자원의 구성원간 그리고 기간간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